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트럼프 측근 2명, 파월 의장 후임으로 부상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국채 가격 6일째 하락 중
- Bloomberg: 트럼프의 구리 50% 관세 움직임에 금속 시장 흔들려

[무역 전쟁]

- WSJ: 트럼프, 측근 요청에 상호 관세 8월 1일로 연기

[물류]

- WSJ: 미 항만 운영자들, 중국산 크레인 관세 부과 연기 요청

[오일]

- Bloomberg: 유가 하락, 미국 재고 증가 전망이 UAE 전망보다 높아

[자동차]

- Reuters: 자동차 제조업체, 세액공제 종료 앞두고 전기차 판매 박차
- Reuters: 관세 부과로 미국 중고차 가격 급등

[주택]

- Bloomberg: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 2년 만에 최고치

[인공지능]

- WSJ: AI 스크래핑 경쟁, 웹의 미래를 바꾼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Two Kevins Battle to Be Next Fed Chair in Trump's Apprentice-Style Contest

트럼프 측근 2명, 파월 의장 후임으로 부상

- 연준 파월 의장이 내년 5월에 물러서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측근이 Kevin Hassett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전 연준 이사인 Kevin Warsh가 후임 자로 부상하고 있다.
- 현재 Kevin Hassett가 가장 강력한 후임자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연준의 금리 인하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반면 Kevin Warsh는 8년 전 트럼프의 연준 의장의 지명을 놓친 인물인데, 트럼프 핵심 측근이 아니고,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평가가 있다.
- 현재 트럼프는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연준의 신중한 금리 인하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reasuries Extend Run of Losses Before Debt Sales, Fed Minutes**미국채 가격 6일째 하락 중**

- 미국채 옵션과 지난달 연준 정례 회의 의사록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국채가 6일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 10년물 국채 금리는 2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4.42%로 지난 두 달간 저점 대비 20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다.
- 미국채 10년물은 오늘 수요일 오후에 3백90억 불 규모, 그리고 내일 목요일에 2백20억 불 규모의 30년 국채물이 경매하게 된다. 어제 화요일 3년물의 경우 수요가 적었다. 즉,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Copper Market in Turmoil as Trump Touts 50% Tariff on US Imports**트럼프 구리 50% 관세 움직임에 금속 시장 흔들려**

- 트럼프가 구리 수입 시 관세를 50% 매기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구리 시장의 선물이 크게 오르면서 금속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내 산업 원자재의 채굴과 정제를 늘리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산업 진흥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 철강과 알루미늄처럼 구리에 50% 관세 부과 시 전력, 건축, 자동차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트럼프의 입장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loomberg 기사

[무역 전쟁]

WSJ: Trump Delayed Reciprocal Tariffs After Besson Wanted More Time on Deals**트럼프, 측근 요청에 상호 관세 8월 1일로 연기**

- 트럼프는 측근들이 무역 과세 협상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상호 관세를 8월 1일부터로 연장했다.
- 트럼프는 여러 국가와의 관세 논의 진전이 더딘 것에 불만을 나타냈으며 이 국가들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하고 있다.
- 트럼프는 각국에 서한을 보내고 있는데 이는 막판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기술로 보여지고 있다. 유럽연합 등 추가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WSJ 기사

[물류]

WSJ: U.S. Ports Appeal for Delay to Tariffs on Chinese Cranes
미 항만 운영자들, 중국산 크레인 관세 부과 연기 요청

- 현재 미국 정부가 중국산 크레인에 최고 1백%의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이로 인해 항만 시설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항만청은 운용 비용 상승에 우려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항만청 운영자들은 기존 크레인 주문에 대한 관세 요청을 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 부과를 연기해달라는 입장을 미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 이들은 중국산 크레인이 값싸고 다른 제품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WSJ 기사

[오일]

Bloomberg: Oil Dips as US Stockpile Gain Forecast Outweighs UAE Bullishness
유가 하락, 미국 재고 증가 전망이 UAE 전망보다 높아

- 미국 원유 재고가 증가할 전망이 나오면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장 상황이 긴축되었다 밝힌 이후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710만 배럴 늘어나 1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 삭소 뱅크 상품 전략 책임자 Ole Hansen은 “시장 상황은 빠듯하나, 수요 둔화에 따라 가을까지 공급 과잉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이스라엘-이란 분쟁 이후 시장의 관심은 OPEC+의 공급과 미국 무역 정책으로 옮겨갔는데, 여러 분석가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loomberg 기사

[자동차]

Reuters: Automakers push EV sales as \$7,500 US tax credit is set to end
자동차 제조업체, 세액공제 종료 앞두고 전기차 판매 박차

-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오는 9월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폐지를 앞두고 전기 자동차 구매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테슬라 홈페이지는 “7,500달러 연방 세액공제 종료. 2025년 9월 30일까지 인도받으세요.”라는 배너가 게재되었다. 또한, 포드 모터는 EV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9월 말까지 무료 가정용 충전기 및 설치 서비스를 연장하며 수요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 버클리 등 대학 연구에 따르면,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전기 자동차 등록 건수가 27% 감소할 수 있고, 다른 국가의 전기차 도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세액 공제 폐지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24년 말부터 준비되어왔고, 이를 미리 인지한 일부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를 앞당겼다. 구매를 미뤄온 소비자들은 3분기 초에 구매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Reuters 기사

Reuters: US used car prices surge as tariffs drive market volatility 관세 부과로 미국 중고차 가격 급등

-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로 차량 가격과 판매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중고차 도매 경매 가격 지표가 다시 상승해 지난달 3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 Manheim 중고차 가치 지수는 6월에 전월 대비 1.6%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 6.3% 급등해 2022년 8월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을 보였다.
- Cox Automotive 경제 부문 수석 이사 Jeremy Robb은 “관세로 인해 2분기 도매가격 상승 추세가 더욱 불안정해졌지만, 차량 판매는 예년보다 더 활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그는 “중고차 시장으로 공급되는 차량도 감소하고 있어, 이 두 가지 요인이 앞으로 더 높은 가격을 뒷받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한편,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된 이후 초봄 신차 구매는 급증했으나, 5월과 6월의 판매량은 크게 연이어 하락했다.

Reuters 기사

[주택]

Bloomberg: US mortgage applications to buy a home jump to two-year high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 2년 만에 최고치

- 미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가 2023년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대출 비용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주택 구매 신청 지수는 9.4% 상승했고, 재융자 지수는 4월 이후 최고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계약 금리는 지난주 2bp 하락한 6.77%를 기록했다.
- 이코노미스트들과 부동산 중개인들은 주택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주택 구매 비용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필요가 있다 말했다.

Bloomberg 기사

[인공지능]

WSJ: The AI Scraping Fight That Could Change the Future of the Web AI 스크래핑 경쟁, 웹의 미래를 바꾼다

- 출판사들이 AI 도구에 필요한 콘텐츠를 기술 회사들의 웹 스크래핑으로부터 자사 웹사이트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웹 스크래핑은 데이터를 수집해 사이트 검색 결과 노출 수를 늘려 트래픽 및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이다.
- 미디어 기업들은 소송 제기, 라이선스 계약 체결, AI 스크래핑 툴 '크롤러' 차단 등을 통해 자사 콘텐츠를 보호하거나, 사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스크래핑 활동은 지난해에 비해 1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AI 기업들은 자신들의 스크래핑이 합법적 자료 활용이라 주장하는데, 이 문제는 저작권 분쟁과 무료 스크래핑 허용 여부 등 인터넷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러한 갈등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메타와 AI 스타트업 Anthropic은 출판사와의 소송에서 부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는 정당한 행위라는 이유였다.

WSJ 기사

[보고서]

**美, 반도체·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달 말 결정...구리는 50% 부과
트럼프 "의약품, 美서 생산할 시간 1~1.5 년 주겠지만 이후엔 높은 관세"
"의약품 관세는 200% 정도로 매우 높게"...반도체 관세율은 언급 안해
美상무 "반도체·의약품 조사, 이달말 완료...관세 세부사항 대통령이 결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8 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취재진에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을 발표할 것이다. 큰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과 발표 시기 및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